

전남

전남 농기계 보유 29만대 전국 2위

기계화 영농 정착... 폐농기계 가장 많아 골치

전남 농민들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농업 기계를 보유하는 등 기계화 영농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농기계 보유대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수거방안 등 재활용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지난 2009년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농업기계(경운기·트랙터·이앙기·관리기 등)는 모두 29만3731대로 보유순위 2위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농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농업기계는 경운기로 11만3635대였고 ▲관리기(4만5425대) ▲트랙터

이앙기(3만8558대) ▲농업용 트랙터(3만6803대) ▲콤바인(1만2978대) 순이었다.

도농복합지역인 광산군 등을 끼고 있는 광주의 주요 농기계 농기계 보유대수는 ▲트랙터 경운기 3589대 ▲농업용 트랙터 1659대 ▲트랙터 이앙기 1065대 등 모두 9304대로 서울(293대), 대전(5548대)에 이어 적었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보급대수 못지않게 가동을 못 하는 폐농기계 역시 타 시·군보다 많은 실정이다.

전남도 폐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598대·트랙터 이앙기 208대·관리기 128대·농업용 트랙터 등 모두 1146대이다. 이는 경기도 1397대에 비해 적지만 ▲경남 1127대 ▲경북 1105대 ▲충남 1062대 ▲강원도 892대에 비해 많은 양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안군이 370대로 32.3%를 차지하며 무안 148대·강진 102대·곡성 72대·나주 59대 순이었다.

이러한 폐농기계 증가는 90년대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보급이 늘었으나 이후 중단돼 농기계 10~20년씩 노후화된다는 이농과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농기계 특성상 영농철에만 수십일 집중적으로 사용된 후 묵히고, 만만치 않은 농기계의 수리비용에 대한 농가의 부담도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 10개 시·군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무료 수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성·강진·완도·진도·구례·영암 등 6개 군에서 ▲트랙터 6대 ▲경운기 197대 ▲관리기 13대 ▲이앙기 68대 등 총 606대의 농기계를 수리했다.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임대은행 활성화 등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젊은 귀농인들의 경우 농기계를 구입한 후 농기계 수리교육을 이수해 자가(自家)정비를 하기도 한다"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과 함께 순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배야 잘 자라거라”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배 농원에서 주민들이 성장촉진제를 바르고 있다. 배 농가들은 지난 4월 이상기온에 따른 병해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영암=위취림기자 jrwi@

업소에 스마일 명찰 등 배부

목포시, 음식문화 개선 전개

목포시 ‘스마일-목포’라는 새로운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시는 남도의 투박한 사투리와 무표정 등으로 인해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자칫 불편할까봐 비치는 것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도시 목포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스마일-목포’운동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시 보건소는 ‘스마일-목포’ 운동의 정착을 위해 목포시 관내 4200여개 업소에 스마일 명찰과 위생복·위생모자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홍보를 실시한 후 ‘스마일-목포’ 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수시로 명찰과 위생복·위생모 착용여부를 특별단속한다.

단속결과 명찰과 위생복·위생모 착용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20만원)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목포시 보건소는 식당 실천사항으로 ▲개인별 위생찬기 사용 ▲집게·국자·얇집기 제공 ▲남은 음식 재사용인하지, 고객 실천사항으로는 ▲먹을 만큼만 덜어먹기 ▲양(量) 중심의 비위생적인 푸짐한 식단 거부하기 등을 중점 지도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태풍·호우 철저히 대비합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는 1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18개 지사장과 직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보 및 재해대비 정신재무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나주 남평읍, 노안·금천·산포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 1년 연장

전남도는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나주 광역권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나주 남평읍, 노안·금천·산포면 일원 39.6km로 광역권개발제한구역의 토지시장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재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비도시지역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이다.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담양 다문화 가족 훈훈한 봉사활동

‘예수 마음의 집’ 찾아 댄스 공연·다과회

담양군에 거주하는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 가족이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담양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필리핀 대표 할린과 베트남 대표 이희림 등 20명은 최근 관내 ‘예수마음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자국의 민속춤과 댄스 공연을 펼쳐 감동을 받았다.

또한 공연이 끝나고 직접 준비한 국수와 바나나·빵·음료수 등으로 다과상을 차려 노인들을 대

접했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지난달 1일부터 5일간 펼쳐진 제12회 대나무축제 때 ‘외국문화 음식 체험관’을 운영, 필리핀 바비큐 꼬치구이와 베트남 쌀국수·짜조 등의 자국 음식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획한 필리핀 가족 대표 할린씨는 “그동안은 우리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작지만 우리 힘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

도 농기원 교육생 대거 합격

전남도 농업기술원 주관의 농산물 품질관리사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1차 시험에 대거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1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산물 품질관리사반 40명이 지난달 9일 시행된 1차 자격시험에 응시해 28명(70%)이 합격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간 우수한 외부강사를 초청해 10시까지만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총정리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올려 가정에서도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기동기자 song@

천적 활용 수박 재배로 10억 ‘대박’

담양 봉산한미음작목반 8ha 年 420t 생산

담양의 한 작목반이 농약을 쓰지 않고 천적 등을 활용한 무농약으로 수박을 재배해 10억원대 매출을 올려 화제다.

‘수박 대박’의 주인공들은 담양군 봉산면의 ‘봉산한미음작목반’이다. 1일 봉산한미음작목반에 따르면 이들은 마을에 8ha 규모로 시설 하우스를 마련하고 친환경 농법을 이용, 수박을 재배해 연간 420t을 생산하고 있다.

작목반은 지난 2006년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농약 인증을 받은 이후 1년만에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시설작물 특성상 아직 유기농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천연자재를 활용한 미생물 제제와 빛검 등 유기물·황도 등을 수박재배에 이용하고 병해충 방제에도 농약 대신 ‘콜레마니진디발’ ‘지중해이리움에’ 등 천적 곤충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로 친환경농법을 성실히 실천했다.

특히 수박의 당도를 고르게 유지하기 위해 규격 이하 제품은 아예 출하지 않는 엄격함을 보였다.

시설하우스에서 나온 모든 수박에 대해 비파괴 당도측정을 실시하고 당도가 12브릭스(Brix=당도 단위)이상인 수박만 선별해 출하는 등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품

질관리 시스템도 갖췄다.

또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개단위 포장지를 제작, ‘봉산 수박’에 고급스러움을 더해 개당 판매가격이 일반 수박보다 1.5배가량 높은 1만6000원을 받고 있다.

작목반은 이 같은 품질관리로 생산된 수박을 친환경농산물 국내 최대소비자 단체인 ‘아이쿱(i-COOP) 생활연대’와 학교급식자재로 공급해 수박 하나만으로 연간 1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동춘 봉산한미음작목반 대표는 “앞으로는 재배 여건 개선과 재배 확대를 통해 연중 출하기간을 현재 40일에서 80일까지 늘려 봉산수박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대인동심일부동산
(FAX)223-177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대지 300평 건물 140평
•매가 7억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태양광부지 구합
나대지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정관사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3.3㎡당 18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4명
(062)364-8700
H.P.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층/건물가
▶근린상가
지역 소재지 건물층 면적/층 건물가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층 면적/층 건물가